

고봉친필본 <陶山記> 해제

임준성*

<차 례>

1. 머리말
 2. <陶山記> 해제
 3. <陶山記> 원문 텍스트
- * <陶山記> 원문 영인

1. 머리말

高峯 奇大升(1527-1572)은 湖南의 名賢으로 조선 전기 유교철학사에서 우뚝 선 분이다. 고봉이 살았던 16세기는 훈구세력과 사림세력 간에 정치 이념의 견해 차이로 인해 대립이 극심했다. 4대사화의 끔찍한 참화는 道學을 꿈꾸던 뜻있는 선비들을 좌절시켰고, 사회전반에 걸쳐 혼란을 야기시켰다. 이무렵 조정에 있는 선비나 재야에 있는 선비들 대부분은 명철보신과 은거의 갈림길에서 갈등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조윤제는 이 시기를 ‘자연미의 발견’¹⁾이라 하여 사회로 혼란스런 세상을 벗어나 자연의 진경에 몰입하여 강호의 경치에 묻혀 지내려는 새로운 작가군이 현저하게 일어났다고 파악했다. 특히 退溪 李滉(1501-1570)은 이러한 풍조 속에서 龔巖 李賢輔(1467-1555)와 俛仰亭 宋純(1493-1582)의 江湖歌道를 계승하여 시가사상 한 획을 긋는 분²⁾으로 주목받았다. 우

* 조선대학교

1) 조윤제, 『조선시가사상』, 을유문화사, 1954.

2) 최진원, 『국문학과 자연』, 44쪽, 성균관대 출판부, 1986.

리 문학사에서 강호가도를 이어서 산수시가의 본격적인 시작³⁾을 알리는 것은 퇴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퇴계는 宦路에서 물러나 고향 兪溪로 돌아와서 『溪山雜詠』를 지었다. 이 책은 다시 『退溪雜詠』과 『陶山雜詠』으로 나뉘는데, 이번에 소개하는 고봉친필본 <陶山記>는 『陶山雜詠』에 실려 있는 것을 필사한 것으로 원 제목은 <陶山雜詠 并記>다. 이는 퇴계가 57세 때 陶山書堂을 짓고 66세 까지 10여년 간 거처하면서 서당 안팎의 모습을 읊은 것 가운데 49題 92首만 가려 뽑은 것에 대한 머릿글 형식을 띠고 있다. 여기에 수록된 시편들은 대체로 도산서당에 머물면서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들을 교육하면서 자연과 함께 벗하며 유유자적해하는 모습으로 채워져 있다. 이 시기에 퇴계가 만족해하며 사는 모습을 담은 시 한 수 인용해본다.

自喜山堂半已成
山居猶得免躬耕
移書稍稍舊龕盡
植竹看看新筍生
未覺泉聲妨夜靜
更憐山色好朝晴
方知自古中林士
萬事渾忘欲晦名

서당이 반이나 이루어져 내 기뻐하니
산에 살면서 되려 몸소 밭가는 것 편했네
서책 조금씩 옮기다보니 옛서실 다 비고
대나무 심고 보고 또 보니 죽순 새로 나네
샘물소리 고요한 밤을 방해해도 깨닫지 못하겠네
아침에 개니 산의 경치 더욱 사랑스러워라
이제 알겠네 숲속의 선비 예로부터
모든 일 잊고 이름숨긴 그 뜻을

<陶山言志 도산에서 뜻을 말하다>⁴⁾

퇴계가 61세에 지은 것이라 전하는 위 시는 得意에 가득찬 삶을 기쁘게 노래하고 있다. 퇴계가 남긴 3,000여 수에 가까운 시편들은 성리학적 세계관을 노래하는 哲理的인 작품보다 산수자연과 관련하여 佛敎와 老莊의 이야기를 다수 인용한 시작품이 많다는 점을 쉽게 간과하고 있다. 이는 퇴계가 근엄한 유학자라는 상에 너무 집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3) 신두환, <退溪의 漢詩에 나타난 '拙樸'의 美>, 『한자한문연구』20, 한국한자한문고육학회, 2008.

4) 『退溪集』卷之三, 한국문집총간 29, 116쪽, 민족문화추진위원회.

들게 한다. 오히려 퇴계의 학문적인 면 때문에 그의 문학적 성과가 다소 가려진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 점은 앞으로 퇴계문학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고봉은 학문을 떠나 순수한 인간의 처지에서 퇴계를 닮고자 했다. 그가 직접 옮겨적은 <陶山記>는 퇴계의 인간적 면모를 흠모하는 마음바탕을 갖추지 않았더라면 나올 수 없었다.

여기에 고봉친필본 <陶山記>를 소개하는 목적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고봉의 친필 유목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고봉을 배향하고 있는 월봉서원을 성역화 또는 문화유적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교육관과 기념관이 공사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 완공예정이다. 지금까지 고봉의 친필유목이라 전하는 작품은 필자가 과문한 조사한 결과 다섯 점을 넘지 않았다. 아직 후손가에 비장되고 있는 작품까지 포함하면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고봉의 친필 유목은 물론이고 유물까지 한 자리에 정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좀더 정밀하고 체계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2009년에 고봉의 유물유적에 대해 1편의 논문을 제출한 바가 있다.⁵⁾ 그러나 개인적 차원의 조사연구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고봉의 문중과 학계에서 좀더 넓게 조사할 필요성을 있음을 적극 건의하는 바이다. 이는 해당 인물의 유물 중에 핵심은 바로 친필유목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고봉의 문학세계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함이다. 고봉 또한 퇴계와 마찬가지로 성리학적인 관점에 치중된 연구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가 남긴 600여 수의 한시작품을 살펴보면 산수자연을 노래한 작품이 다수 보이고 있다. 성리학자로 고봉의 모습도 좋지만 시인으로서 모습을 찾아갈 때 고봉의 진면모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중 그가 만년

5) 임준성, 「고봉의 유물유적」, 『고봉 기대승 연구』, 고헌학술원, 2009.

에 지은 작품으로 추정되는 <幽居雜詠> 15수는 퇴계의 도산서당 운영과 자연조경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陶山記> 해제

고봉친필본 <陶山記>는 새로운 자료라 볼 수 없다. 이미 목판본 『고봉집』3권에 실려 있으며, <陶山記>의 원본 또한 『퇴계집』3권에 <도산잡영명기>라는 이름을 실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새로운 자료라 소개하는 까닭은 고봉의 친필본이기 때문이다. 이 자료 또한 근래 새로 발굴된 자료도 아니다. 이미 1994년 광주광역시 시도유형문화재 2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고봉의 16대 종손 奇聖根(70세)씨가 소장하고 있다. 필자가 우연한 기회에 국립광주박물관에서 개관 30주년을 맞이하여 펴낸 『광주, 유구한 문화의 도시』(2008년)에 일부 수록되어 있는 것에서 고봉친필본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후일 종손 어르신을 찾아뵙고 고봉친필본 <陶山記>를 직접 친견하고 촬영할 기회를 얻었다.

이 책자는 28.5×39.7cm 크기이며, 표지를 제외하고 30쪽으로 된 粧帖 형태이다. 王羲之體의 전형적인 行書體로 글자 하나하나에 성심성의껏 옮겨 적었다.

<陶山記>는 퇴계 이황의 『陶山雜詠』의 머릿글과 같은 것으로 1561년(明宗 16)에 지은 것이다. 여기에는 퇴계가 살고 있는 도산의 지세와 위치를 비롯하여 그곳에 精舍를 짓게 된 연유, 건물의 배치와 주변의 園林과 景觀, 그리고 도산에서 사는 생활모습과 산림에 처하는 자세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시를 덧붙이고 있는데, 陶山書堂, 巖栖軒, 玩樂齋, 幽貞門, 淨友堂, 節友社, 隴雲精舍, 時習齋, 止宿寮, 觀瀾軒, 谷口巖, 濯纓潭, 盤陀石, 東翠屏山, 西翠屏山, 芙蓉峯 등 구체적 공간을 주제로 한 칠언절구 18수와 蒙泉, 冽井, 庭草, 礪柳, 菓捕, 花砌, 西壠, 南泚, 翠

微, 寥朗, 釣磯, 月艇, 櫟遷, 漆園, 魚梁, 漁村, 烟林, 雪徑, 鷗渚, 鶴汀, 江寺, 官亭, 長郊, 遠岫, 土城, 校洞 등 또다른 공간을 주제로 한 오언절구 26수, 그리고 도산의 주변 마을인 龔巖, 汾川, 賀淵, 屏庵 등 오언절구 4수가 실려 있다.

현재 목판본 『퇴계집』과 『고봉집』과는 다소 글자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의미전개상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고봉이 필사한 시기는 1572년 5월. 그러니까 고봉이 돌아가시기 불과 6개월 전이다. 고봉은 당시 지병을 앓고 있어 조만간 한양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몸도 시원치 않았을 상황에서 한 글자 한 글자 또렷이 써내려갔을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숙연해진다.

고봉은 친구이자 퇴계의 제자인 金就勵가 스승의 문하에서 공부하다가 이 글을 빌려보았는데, 그 후 장첩으로 만들어 귀중하게 보관해왔다고 한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고봉의 필사한 시기가 아닌 빌려본 시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지만 고봉의 발문을 보면 퇴계가 <도산잡영 병기>를 쓴 해가 1560년에서 그리 멀지 않는 시기에 이 글을 읽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는 고봉이 필사를 마치고 쓴 跋文에서 퇴계의 시 바로 뒤에 연이어 ‘以上 陶山記文 一篇과 各處에 대해서는 七言 18絶, 五言雜詠 26絶, 別錄 4絶은 퇴생선생께서 직접 쓴 글이다. 간혹 고친 흔적이 있는 것은 草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草本이라 함은 고봉이 퇴계가 쓴 시점에서 그리 멀지 않는 시간임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이로 미루어보면 현재 목판본 『퇴계집』과 『고봉집』에 실린 <陶山記>는 고봉의 친필본 <陶山記>가 定本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조심스레 해본다. 이는 좀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라 하겠다.

고봉은 김취려가 跋文을 요청해서 마지못해 허락했으나 벼슬살이에 여념이 없어 틈을 내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뤘다. 이제 한가해진 틈을 타서 때때로 이 글을 꺼내 보며 읊조리면서 퇴계선생의 깊은 뜻을 헤아려본다고 하였다. 도산까지 찾아가 선생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싶지만 산천이 가로 막혀 동쪽을 바라보며 그리움만 달랜다고 하였다. 이 시기는 퇴계선

생이 생존해 계실 때였다. 김취려는 跋文 뿐만 아니라 퇴계의 시를 차운하여 작품을 지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또한 미루고 미루다가 다시 한가한 틈을 타서 칠언절구 18수를 뒷부분에 써넣고 퇴계선생께 質正을 구하는 의미에서 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내가 이 시를 짓고 나서 선생께 올리고자 했으나 감히 못했다. 문득 帖에 써두고 게으름 피우다가 갑자기 산이 무너지는 아픔을 만났다. 선생의 遺帖을 어루만지며 더욱 슬퍼했다. 지금 한양에서 김취려를 만나 서로 옛일을 이야기하며 목놓아 슬퍼했다. 이윽고 시첩을 꺼내어 써서 주었다. 비루한 말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또한 생각은 있는 것이니 만약 선생께서 지하에서 일어나신다면 반드시 내 마음을 잘 알아주실 것이다. 아 슬프도다. 임신년(1572, 선조5) 5월 어느 날에 기대승은 漢城 終南山 寓舍에서 쓰다.⁶⁾

발문 마지막 부분이다. 산이 무너지는 슬픔은 퇴계선생의 서거를 말한다. 고봉은 선생 생전에 차운한 시를 보여드리고자 하였으나 게으름피우다가 여기에 미처 옮겨 적지 못했다. 친구인 金就礪가 퇴계선생의 <陶山記> 초본을 첩으로 만들어서 책 끝에 써달라고 부탁하여 쓰게 된 것과 화운한 시 또한 김취려의 부탁으로 지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 글 끝부분에 필사한 시기를 밝히면서 고봉 돌아가시기 6개월 전 서울 남산에서 쓴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고봉친필본 <陶山記>는 목판본으로도 존재한다. 그러나 언제 간행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서지사항은 전하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이 목판본은 앞부분과 뒷부분의 字體가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부분은 퇴계의 詩文을 自筆 그대로 板刻한 것으로 行草體로 되어 있다. 뒷부분은 고봉의 발문과 차운시가 실려 있으며 퇴계와 달리 楷書體로 쓰여 있다. 목판본의 제작동기 또한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퇴계와 고봉의 각별한 관계를 고려하여 후대 문인들이 문집과는 별도로 粧帖형식으로 만들어서 보관한 것이 아니

6) 『高峯續集』卷之一, 한국문집총간 40, 250쪽, 민족문화추진위원회.

겠는가 하고 추론할 뿐이다.

3. <陶山記> 원문텍스트

靈芝之一支東出 而爲陶山 或曰 以其山之再成 而命之曰陶山也 或云 山中舊有陶竈 故名之以其實也 爲山不甚高大 宅曠而勢絕 占方位不偏 故其旁之峯巒溪壑 皆若拱揖環抱於此山⁷⁾然也 山之在左曰東翠屏 在右曰西翠屏 東屏來自清涼 至山之東 而列岵縹緲 西屏來自靈芝 至山之西 而聳峯巍峩 兩屏相望 南行迤邐 盤旋八九里許 則東者西 西者東 而合勢於南野莽蒼之外 水在山後曰退溪 在山南曰洛川 溪循山北 而入洛川於山之東 川自東屏而西 趨至山之趾 則演漾泓渟 沿泝數里間 深可行舟 金沙玉礫 清瑩紺寒 卽所謂濯纓潭也 西觸于西屏之崖 遂並其下 南過大野 而入于芙蓉峯下 峯卽西者東而合勢之處也 始余卜居溪上 臨溪縛屋數間 以爲藏書養病⁸⁾之所 蓋已三遷其地 而輒爲風雨所壞 且以溪上偏於閨寂 而不稱於曠懷 乃更謀遷 而得地於山之南也 爰有小洞 前俯江郊 幽復遼廓 巖麓 悄蒨 石井甘冽 允宜肥遯之所 野人田其中以資易之 有浮屠法蓮者幹其事 俄而蓮死 淨一者繼之 自丁巳至于辛酉 五年而堂舍兩屋粗成 可栖息也 堂凡三間 中一間曰玩樂齋 取朱先生名堂室記樂而玩之 足以終吾身而不厭之語也 東一間曰巖栖軒 取雲谷詩自信久未能 巖栖冀微效之語也 又合而扁之曰陶山書堂 舍凡八間 齋曰時習 寮曰止宿 軒曰觀瀾 合而扁之曰隴雲精舍 堂之東偏 鑿小方塘 種蓮其中 曰淨友塘 又其東爲蒙泉 泉上山脚 鑿令與軒對平 築之爲壇 而植其上梅竹松菊 曰節友社 堂前出入處掩以柴扉 曰幽貞門 門外小徑緣澗而下 至于洞口 兩麓相對 其東麓之脅 開巖築址 可作小亭 而力不及 只存其處 有似山門者 曰谷口巖 自此東轉數步 山麓斗斷 正控濯纓 潭上巨石削立 層累可十餘丈 築其上爲臺 松棚翳日 上天

7) 고봉친필 <陶山記>에 보면 ‘山’은 가필 흔적으로 보인다.

8) 『退溪集』에는 ‘拙’로 쓰여 있다.

下水 羽鱗飛躍 左右翠屏 動影涵碧 江山之勝 一覽盡得 曰天淵臺 西麓亦擬築臺 而名之曰天光雲影 其勝槩當不減於天淵也 盤陀石在濯纓潭中 其狀盤陀可以繫舟傳觴 每遇潦漲 則與齊俱入 至水落波清 然後始呈露也 余恒苦積病纏繞 雖山居 不能極意讀書 幽憂調息之餘 有時身體輕安 心神灑惺⁹⁾ 俛仰宇宙 感慨係之 則撥書携筇而出 臨軒玩塘 陟壇尋社 巡圃蒔藥 披¹⁰⁾林擷芳 或坐石弄泉 登臺望雲 或磯上觀魚 舟中狎鷗 隨意所適 逍遙徜徉 觸日發興 遇景成趣 至興極而返 則一室岑寂 圖書滿壁 對案嘿坐 就存研索 往往有會于心 輒復欣然忘食 其有不合者 資於麗澤 又不得則發於憤排 猶不敢強而通之 且置一邊 時復拈出 虛心思繹 以俟其自解 今日如是 明日又如是 若夫山鳥嚶鳴 時物暢茂 風霜刻厲 雪月凝輝 四時之景不同 而趣亦無窮 自非大寒大暑大風大雨 無時無日而不出 出如是 返亦如是 是則閑居養疾 無用之功業 雖不能窺古人之門庭 而其所以自娛悅於中者不淺 雖欲無言 而不可得也 於是 逐處各以七言一首紀其事 凡得十八絕 又有蒙泉, 冽井, 庭草, 礪¹¹⁾柳, 菜圃, 花砌, 西麓, 南汜, 翠微, 寥朗, 釣磯, 月艇, 鶴汀, 鷗渚, 魚梁, 漁村, 烟林, 雪徑, 櫟遷, 漆園, 江寺, 官亭, 長郊, 遠岵, 土城, 校洞等 五言雜詠二十六絕 所以道前詩不盡之餘意也 嗚呼 余之不幸晚生遐裔 撲¹²⁾陋無聞 而願於山林之間 夙知有可樂也 中年 妄出世路 風埃顛倒 逆旅推遷 幾不及自返以¹³⁾死也 其後年益老 病益深 行益躓 則世不我棄 而我不得不棄於世 乃始脫身樊籠 投分農畝 而向之所謂 山林之樂者 不期而當我之前矣 然則余乃今所以消積病 豁幽憂 而晏然於窮老之域者 舍是將何求矣 雖然 觀古之有樂於山林者 亦有二焉 有慕玄虛 事高尚而樂者 有悅道義 頤心性而樂者 由前之說 則恐或流於潔身亂倫 而其甚 則與鳥獸同羣 不以爲非矣 由後之說 則所嗜者糟粕耳 至其不可傳之妙 則愈求而愈不得 於樂何有 雖然 寧爲此而自勉 不爲彼而自誣矣 又何暇知有所謂世俗之營營者 而入我之靈臺乎 或曰 古之愛山者

9) 『退溪集』에는 ‘醒’으로 쓰여 있다.

10) 『退溪集』에는 ‘搜’로 쓰여 있다.

11) 『退溪集』에는 ‘澗’으로 쓰여 있다.

12) 『退溪集』에는 ‘撲’으로 쓰여 있다.

13) 『退溪集』에는 ‘而’로 쓰여 있다.

必得名山以自託 子之不居清涼 而居此何也 曰 清涼壁立萬仞 而危臨絕壑 老病者所不能安 且武夷所以爲天下絕勝者 以中有九曲水也¹⁴⁾ 今洛川雖過清涼 而山中不知有水¹⁵⁾ 余固有清涼之願矣 然而後彼而先此者 凡以兼山水 而逸老病也 曰 古人之樂 得之心而不假於外物 夫顏淵之陋巷 原憲之甕牖 何有於山水 故凡有待於外物者 皆非眞樂也 曰 不然 彼顏原之所處者 特其適然 而能安之爲貴¹⁶⁾ 使斯人 而遇斯境 則其爲樂 豈不有深於吾徒者乎 故孔孟之於山水 未嘗不亟稱而深喻之 若信如吾子之言 則與點之嘆 何以特發於沂水之上 卒歲之願 何以獨詠於蘆峯之巔乎 是必有其故矣¹⁷⁾ 嘉靖辛酉日南至 山主老病畸人記¹⁸⁾

陶山書堂 陶意見記 今詩中 或事或姓 點綴陶字 乃事外映事 以寓意耳 大舜親陶樂且安 淵明躬稼亦歡顏 聖賢心事¹⁹⁾吾何得 白首歸來試考槃 巖栖軒 曾子稱淵淵有若無 實若虛 屏山字晦菴 以是祝之 晦菴詩 自信久未能 岩巖栖冀微效 名軒以自勸

曾氏稱顏實若虛 屏山引發晦翁初 暮年窺得岩栖意 博約淵水恐自踈 玩樂齋 朱子名堂室記 以持敬明義 動靜循環之功 爲合乎周子太極之論 足以 玩樂而忘外慕 今以名齋而日加警焉

主敬還須集義功 非忘非助漸融通 恰臻太極濂溪妙 始信千年此樂同 幽貞門

不待韓公假大龜 新居縹緲映柴扉 未應山徑憂茅塞 道在幽貞覺坦夷 淨友塘 濂溪愛蓮說 稱蓮美非一 而曾端伯獨呼爲淨友 恐未盡也²⁰⁾

物物皆含妙一天 濂溪何事獨君憐 細思馨德眞難友 一淨稱呼恐亦偏 節友社 陶公三徑 梅獨見遺 不但離騷爲欠典也

松菊陶園伴²¹⁾竹三 梅兄胡奈不同參 我今併作風霜契 苦節清芬儘飽譜

14) 이 부분은 『退溪集』에 ‘且樂山樂水 缺一不可’라 쓰여 있어 고봉친필본과 차이를 보인다.

15) 『退溪集』에는 문장 마지막에 ‘焉’이 쓰여 있다.

16) 『退溪集』에는 문장 마지막에 ‘爾’이 쓰여 있다.

17) 『退溪集』에는 이 문장 뒤에 ‘或人唯而退’가 이어져 있다.

18) 위 글은 『退溪先生文集』卷之三에 <陶山雜詠并記>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19) 고봉친필본에는 ‘事’라 쓰여진 자리가 네모 형태로 오려져 있다.

20) 『退溪集』에는 이 문장 뒤에 ‘案曾端伯花中十友 謂桂仙友 海棠名友 荷淨友 醉醺韻友 瑞香殊友 梔子禪友之類’가 이어져 있다.

隴雲精舍

常愛陶公隴上雲 唯堪自悅未輸君 晚來結屋中間臥 一半閑情野鹿分
時習齋

西進²²⁾明誠效²³⁾數飛 重思複踐趁趨時時 得深正在工夫熟 何啻珍烹悅口頤
止宿寮

愧無雞黍慢²⁴⁾留君 我亦初非鳥獸羣 願把從師浮海志 聯床終夜細云云
觀瀾軒²⁵⁾

浩浩洋洋理若何 如斯曾發聖咨嗟 縱²⁶⁾然道體因茲見 莫使工夫間斷多
谷口巖

東躡江臺北入雲 開巖²⁷⁾谷口擬山門 此名偶似前賢地 耕隱高情²⁸⁾詎易論
天淵臺

縱翼揚鱗孰使然 生生²⁹⁾活潑妙天淵 江臺盡日開心眼 三復明誠一巨編
天光雲影臺

活水天雲鑑影光 觀書深喻在方塘 我今得意清潭上 恰似當年感嘆長
濯纓潭

漁父當年笑獨醒 何如孔聖戒丁寧 我來叩柅吟風月 却³⁰⁾喜清潭可濯纓
盤陀石

黃濁滔滔便隱形 安流帖帖始分明 可憐如許奔衝裏 千古盤陀不轉傾
東翠屏山

簇簇群巒左翠屏 晴嵐時帶白雲橫 斯須變化成飛雨 疑是營丘筆下生
西翠屏山

嶷嶷羣峯右翠屏 中藏蘭若下園亭 高吟坐對真宜晚 一任浮雲萬古青
芙蓉峯

南望雲峯半隱形 芙蓉曾見足嘉名 主人亦有烟霞癖 茅棟深懷久未成 趙士敬
居其下

蒙泉 書堂之東 有泉曰蒙 何以體之 養正之功

-
- 21) 『退溪集』에는 ‘與’라 쓰여 있다.
22) 『退溪集』에는 ‘日事’라 쓰여 있다.
23) 『退溪集』에는 ‘類’라 쓰여 있다.
24) 『退溪集』에는 ‘謾’이라 쓰여 있다.
25) 『退溪集』에는 ‘時習齋’ 다음에 놓여 있다.
26) 『退溪集』에는 ‘幸’이라 쓰여 있다.
27) 『退溪集』에는 ‘荒’이라 쓰여 있다.
28) 『退溪集』에는 ‘風聲’이라 쓰여 있다.
29) 『退溪集』에는 ‘流行’이라 쓰여 있다.
30) 『退溪集』에는 ‘卻’이라 쓰여 있다.

山泉卦爲蒙 厥象吾所服 豈敢忘時中 尤當思果育
 冽井 書堂之南 石井甘冽 千古烟沈 從今勿幕
 石間井冽寒 自在寧心惻 幽人爲卜居 一瓢眞相得
 庭草 幽庭細草 造化生生 目擊道存 意思如馨
 庭草思一般 誰能契微旨 圖書露天機 只在潛心耳
 礪柳 礪邊垂柳 濯濯風度 陶邵賞好 起我遐慕
 無窮造化春 自是風流樹 千載兩節翁 長吟幾興寓
 菓³¹⁾圃 節友社南 隙地爲圃 下帷多暇 抱甕何苦
 小圃雲間靜 嘉蔬雨後滋 趣成眞自得 學誤未全癡
 花砌 堂後衆花 雜植爛爛 天地精英 莫非佳玩
 曲砌無人跡 幽香發秀姿 風輕午吟處 露重曉看時
 西壠³²⁾ 悄蒨西麓 堪結其茅 以藏以修 雲霞之交
 舍西橫翠麓 蕭灑可幽貞 二仲豈無有 愧余非蔣卿
 南泚 石之揭揭 槩之陰陰 于江之泚 納涼蕭森
 異石當山口 傍邊澗入江 我時來盥漱³³⁾ 清槩興難雙
 翠微 翠微翠微 書堂之東 九日故事 感慨余衷
 東隴上翠微 九日攜壺酒 卻勝陶淵明 菊花空滿手
 寥朗 寥朗寥朗 精舍之西 仰眺俯瞰 孰知其倪
 西隴上寥朗 矯首望烟霞 安得陵八表 仍尋羽人家
 釣磯 臨江苔石 一絲颺風 貪餌則懸 冒利則訐
 弄晚竿仍裊 來多石亦溫 魚穿青柳線 蓑帶綠烟痕
 月艇 一葉小艇 滿載風月 懷人不見 我心靡歇
 寒潭如拭鏡 乘月弄扁舟 九曲羊裘詠 黃岡桂棹秋³⁴⁾
 櫟遷 櫟之不材 多至壽老 厥或不免 乃壽之道
 緣崖路呼遷 其上多樹櫟 何妨抱離奇 壽已過數百
 漆園 漆有世用 其割焉保 厥或免割 乃割之道
 古縣但遺基 漆林官所植 見割有警言 蒙莊亦高識
 魚梁 丙穴底貢 編木如山 每夏秋交 我屏溪間
 玉食須珍異 銀脣合進供 峩峩梁絕³⁵⁾斷 濊濊罟施重
 漁村 太平烟火 宜仁之村 漁以代徭 式飽且溫

31) 『退溪集』과 『高峯集』에는 ‘菓’라 쓰여 있다.

32) 『退溪集』과 『高峯集』에는 ‘麓’이라 쓰여 있다.

33) 『退溪集』에는 ‘濯’이라 쓰여 있다.

34) 『退溪集』에는 ‘湖老烟波詠 坡仙桂棹秋’라 쓰여 있다.

35) 『退溪集』에는 ‘截’라 쓰여 있다.

隔岸民風古 臨江樂事多 斜陽如畫裏 收網得銀梭
 烟林 吟不盡興 畫不盡變 春濃繡錯 秋老霞絢
 遠近勢周遭 漠漠迷烟樹 延望足玩心 變態多朝暮
 雪徑 皓皓崖壑 迢迢磴徑 踏作瑤迹 誰先乘興
 一逕³⁶⁾傍江潯 高低斷復遠 積雪無人蹤 僧來自雲表
 鷗渚 舞而不下 渠未可干 狎而有盟 吾何敢寒
 浩蕩浮還沒 穩穩晒復眠 閑情乃如許 機事定無緣
 鶴汀 鳴臯聞天 掠舟驚夢 野田有侶 盍慎媒弄
 水鶴烟霄下 晴沙立遠汀 那能無飲啄 得處莫留停
 江寺 江上招提 老仙舊居 月寒庭燕 風悲室虛
 古寺江岸空 仙遊杳方丈 蟠桃定何時 結子重來賞
 官亭 官作之亭 歲月茫茫 樂匪知濠 舉似如棠
 小亭境自佳 後江前阜隰 阜蓋不來時 野禽自栖集
 長郊 郊原臙臙 籬落依依 戴星而出 帶月而歸
 炎天彌翠浪 商節滿黃雲 薄暮歸鴉望 遙風牧笛聞
 遠岵 如黛如簪 非烟非雲 入夢靡遮 上屏何分
 微茫常對席 縹緲定何州 雨暗愁無奈 天空意轉悠
 土城 維彼南山 因山作城 海桑一朝 蠻觸何爭
 禦難何代人 古籍莽難考 時平久已頽 兔穴深蔓草
 校洞 古縣鄉校 遺址宛然 麗季辱王 教化無傳
 宮牆沒澗烟 絃誦變山鳥 誰能起廢規 張皇道幽眇
 龔巖 以下四絕所詠 皆天淵所望 然皆有主 故不係陶山 而別錄于下 亦山谷所
 謂借景之義 在西翠屏東 故知中樞李先生亭館在其傍
 西望巖崖勝 高亭勢欲飛 風流那復覩 山仰只今稀
 汾川 在西翠屏南 實里名也 知事之胤大成所居 大成號碧梧
 汾川非異水 回首想梧陰 撼撼鳴疎雨 秋來戀主深
 賀淵 在西翠屏下 承旨李公幹亭舍 在其上
 激湍下爲淵 深處知幾丈 主人在銀臺 烟波頻夢想
 屏庵 在西翠屏崖壁中 上舍李大用所構 命僧守之 舊有淨室 近聞守僧改置其
 室 殊失佳致云
 屏庵在懸崖 石縫泉水齒 舊愛一室明 如今定何似

右陶山記文一篇及逐處記事七言十八絕 又五言雜詠二十六絕 別錄四絕 併

36) 『退溪集』에는 ‘徑’이라 쓰여 있다.

有題識 皆先生所 手寫 間有塗改處 盖初間草本也 余友金君就礪 嘗遊先生之門 得此本以歸 重之不啻如南金和璞 裝繕作帖 以爲寶玩 余嘗從金君借而玩之 金君要余出數語跋其後 余謹已諾之 而風埃逆旅 卒卒無須臾間 固未遑於把筆抒思 今者解官歸鄉 幸無事 時時披閱吟諷 於先生之微意 或有窺得其一二 伏想先生之³⁷⁾此之時 閑居彌久 其所自樂 必有深於前日者 恨不得操几杖從遊於堂壇巖臺之間 而面承提誨也 山川間之 奉拜靡由 東望飛雲 每不覺神魂之馳遡焉 金君又嘗要余和帖中諸詩 余雖不敢輕諾 而心亦許之 玆於閑中輒復仰步七言十八首 併寫之帖末 庶幾少見區區之意 非敢以爲有所助發也 盖欲以求正于金君 而仰質於先生云爾 時隆慶四年庚午之歲五月日 後學高峯奇大升端拜謹書³⁸⁾

容膝堂成審易安 陶匏登案足怡顏 優游卒歲知何事 象在方圓水在槃 右陶山書堂
 收身非欲慕逃虛 勵志唯應冀復初 緬想前修心炯炯 一軒棲息俗緣疎 右巖棲軒
 涵養宜加靜裏功 推行還覺動時通 須探敬義循環妙 方信曾思立教同 右玩樂齋
 卜築何須強灼龜 江潭延徑八柴扉 幽人恰有潛心地 貞吉從教履道夷 右幽貞門
 淤泥不染解全天 濯濯明姿更可憐 想得無言相對處 一團清興爲君偏 右淨友塘
 壇徑栽培一對三 竹松梅菊便相參 風霜雨露殊榮落 造化微機幸自諳 右友社
 藹藹山頭幾片雲 每當怡悅輒思君 也知此物難持贈 脉脉幽懷自十分 右隴雲精舍
 學習如何取數飛 操存思索諒無時 須教浹洽中心悅 未必撐眉獨解頤 右時習齋
 父生師教食於君 老少相隨友與羣 禮有往來情更洽 講求寧復浪云云 右止宿寮
 盈科行險事如何 志道成章足歎嗟 寓日急湍知有本 仰欽先哲起人多 右觀瀾軒
 堂舍粗成谷口雲 更開蘭徑接山門 耕巖名震元非慕 出入無虞却可論 右谷口巖
 鳶魚非但指爲然 仰有青天俯有淵 偶上小臺情境妙 向來辛苦對陳編 右天淵臺
 滄波凝湛寫天光 何似當年半畝塘 固是靜深含萬象 誰知溥博發源長 右天光雲影臺
 潭上行吟悅醉醒 潛思明訓意無寧 縱然自取由清濁 今日真堪濯我纓 右濯纓潭
 金土淪精妙結形 隨波隱見理難明 狂瀾盪擊終無奈 天許孤根老不傾 右盤陀石
 濃淡山光倚畫屏 烟雲變化任縱橫 不應卷石能成大 自是天機有廣生 右翠琴屏山
 偃蹇逍遙萬古屏 淡烟斜日見林亭 秋霜刻轢冰埋覆 忽地春回不改青 右西翠屏山
 山形非必似花形 深秀猶堪當美名 更有幽人葆馨德 一般佳趣類天成 右芙蓉峯

37) 『高峯集』에는 ‘當’이라 쓰여 있다.

38) 위 글은 『高峯續集』卷之二에 <退溪先生陶山記文跋>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余既爲此詩 欲以呈稟先生未敢 遽寫諸帖 懶慢因循 忽遭山頽之慟 撫玩遺帖 益增悲惋 今適入都 見金君 相與道舊摧咽 遂出此帖 書以歸之 抑鄙言雖淺 而亦有意思 如使九原可作 先生必以爲相悉者矣 嗚呼悽矣 壬申五月日 大升書于漢城終南之寓舍